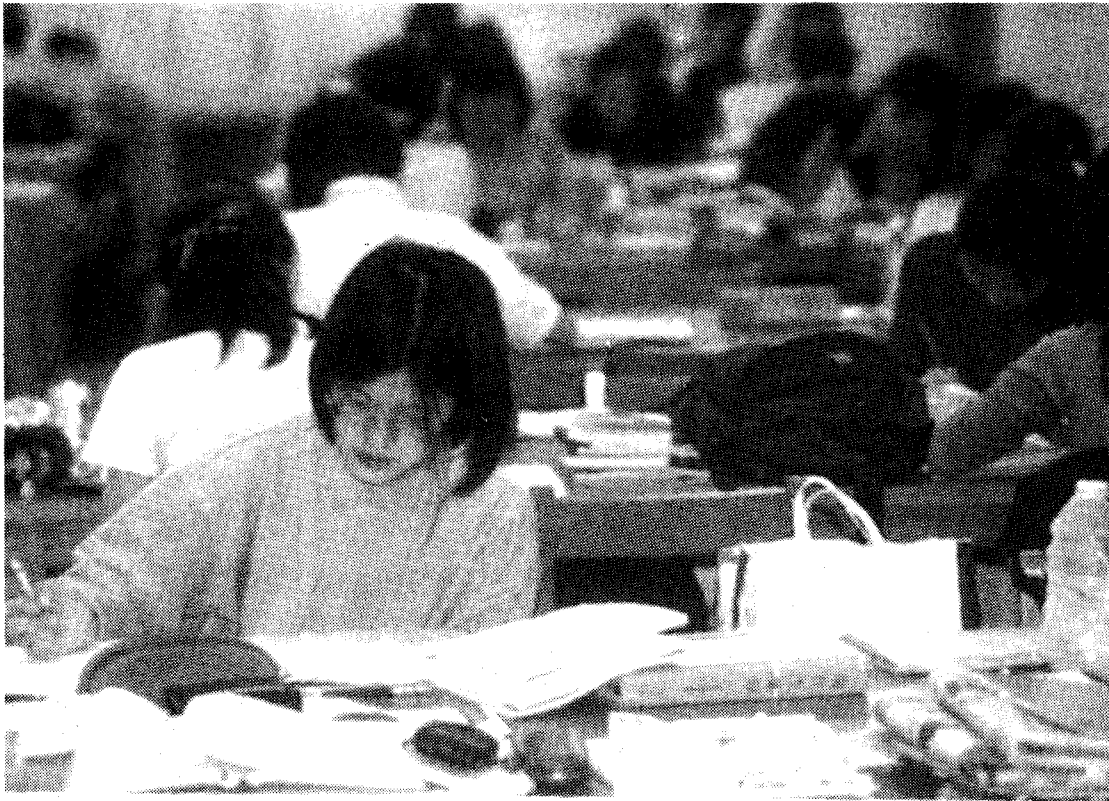


시리즈: 인문학의 부활에 꿈꾸며



추락하는 인문학 날개가 없다(?)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 섬뜩한 얘기일지 모르다. 그러나 현실이다. 즉, 철학, 역사학, 문학 등 다방면으로 인간 삶의 지침이 되어왔던 인문학은 오늘날 사회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다.

작년 11월 국립대학 인문대 학장들은 제주도에 모여 '인문학계추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이며 동시에 우리사회의 문화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충족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학문의 메카인 대학에서 그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2학기에 개설된 철학 개론 강좌가 5명이라는 최저 수강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폐강될 뻔 했다. 우리 학교 포함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학원 진학자 수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철학 대학원 재학생 중 철학과 졸업생은 전체 정원 30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같은 대학 국사학과와 경우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은 졸업자의 20~3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대 학생의 70%가 고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인문학 계통 전공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점은 대학원에 진학해봐도 교수 임용 등의 기회를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따로 마땅히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고시 준비로 몰려 있을 것을 보여준다.

출판계에서 인문학 서적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었다. 80년대 까지 억압받던 시대의 반발력으로나마 인문학 서적이 어느정도 인정받고 그 존재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웬만한 인문학 서적은 서점에 진열되고 두달만 지나면 대개 반품 된다고 한다.

취업 전선에서도 인문학 전공이라는 간판은 불품 없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사원에서 인문 상경 계열 졸업자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이 숫자도 대부분 상경 계열 졸업자가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인문학이 위기 상황에 내몰린 현상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의 도구화 중시 바람이 위기의 그 첫째 원인이다. 70년대 이전까지는 공동 복지를 모체로 하는 케인즈이론 세계 경제체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석유 파동등으로 세계적 경제 불황이 불어 닥치면서 현실적 효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쟁 이론이 세계 경제의 새 주인이 되었다. 경제에서의 새바람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강요했고 학문에서도 예외는 아

취업전선에서도 인문학 전공이라는 간판은 불품 없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사원에서 인문 상경 계열 졸업자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이 숫자도 대부분 상경 계열 졸업자가 차지한다고 한다.

니었다. 결국 당시 추상적이고 탁상 공론적 성격이 강했던 인문학은 구체적인 쓰임새가 없다는 이유로 도태의 길을 강요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문학도 이제 더 이상 순수 아카데미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통 철학의 현대적 적용이라 인정받는 신유교 이론 같이 순수 인문학의 현대적, 실용적 재창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인문학의 지나친 독립성도 문제이다. 조동일(서울대 국문과)교수는 분야별로 철저히 분리된 것은 비단 인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전체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문학에게 더 심하다. 가령 공학의 경우 그 하나 만으로 충분한 쓰임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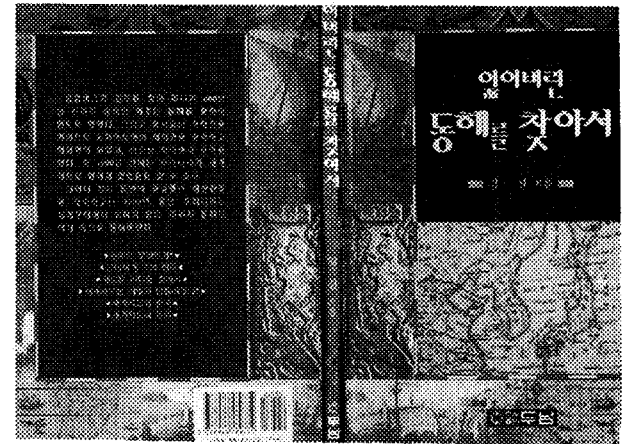
인문학은 인류 문명과 더불어 태어나고 생활한 학문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은 점차 그 입지가 좁아져 이전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인문학의 위기를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바라는 마음에 본 란을 마련했다.

< 편집자 >

글심는 순서

1. 인문학 위기의 현상과 원인
2.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
3. 외국의 인문학 위기 극복사례
4. 인문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 서평—김신(무역)교수의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동해논쟁에 관한 냉철한 분석

일본과의 동해 영유권 분쟁이 또다른 사회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학교 김신(사회대 무역)교수의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라는 책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듯한 용어의 설명에서부터 동해의 어원과 의미, 동해표기의 근거, 역사적인 배경 등등, 저자는 국제무역을 기반을 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측의 어선 나포를 발단으로 불거져나온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의 표기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19세기 후반 일본과 서양 열강과의 활발한 무역을 바탕으로 차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서양의 인지도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쇄국정책으로 인해 그 반대의 경우로 물리는 상황에서 급기야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동해라는 용어는 차츰 사라지고 일본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후 간혹 학계에서는 논의되었지만 국가차원에서의 뚜렷한 결정이나 논의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것이 동해라는 어원의 역사이다.

동해에 대한 표기 문제는 단순히 용어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동해의 자원과 국가 명예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공인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루어지는 동해의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김신교수는 이 책을 통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이 바다의 명칭이 체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이론을 개발하는 한편 동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갖은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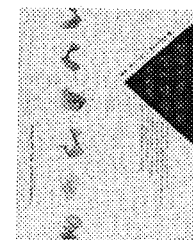
<오세운 편집간사>

시간안내



하이델베르크의 추억

이 책은 작가 신용철(경희대)교수가 그동안 직접 답사한 문화 환경에 대한 감성적 수필이다. 또 역사학자로서 행한 연구활동의 보람과 아쉬움등이 솔직하게 서술되어 있다. 작가의 인생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인을 위한 영어발음6원칙

이 책은 영어가 일상어로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영어 발음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 총6개의 원칙을 내세우고 각 원칙에 따른 발음방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영어 초보자에게 적합한 책이다.



마녀사냥

이 책은 50년대 미국을 휩쓴 메카시즘을 소재로한 사회성 짙은 작품이다. 특히 이성을 잃은 정치적 마녀사냥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가의 야욕을 긴박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KEUMKANG CHEMICAL CO.,LTD. KOREA CHEMICAL CO.,LTD. KEUMKANG CONSTRUCTION CO.,LTD.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없이 도전한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한국 핸드볼처럼, 40여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온 KCC-건축자재의 대명사인 금강, 세계적 도로 업체로 성장한 고려화학, 완벽주의로 건설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금강종합건설까지 KCC는 남다른 미래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채용형태 : 권역별 학교추천 채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모집부서 : 인문사회계, 화공,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디자인계, 전산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97.11.1~22
- 지원서 배부처 : 각대학 취업보도실
- ※ 기타 사항은 지원서 내의 안내서 참조 바람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